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11, 다니엘 8, 하나님의 악에 대한 속박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1회, 다니엘 8장, 하나님의 악에 대한 속박입니다.

이 강의는 다니엘 8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악에 대한 속박으로 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환상에서 다니엘에게 제시된 것의 주된 위로는 하나님이 악을 묶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 이르면 우리는 히브리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 지금쯤 그 책이 히브리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네 가지 환상을 보는 묵시적인 장인 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갈 몇 가지 격려와 주제를 제공하는 교차 구조가 있는 것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이르면 히브리어로 다시 전환합니다. 이 장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비록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는 한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2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 바벨론이나 메대-페르시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여전히 그 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자기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이 장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 자신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빌론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의 초점은 네 가지 환상입니다. 8장은 1장, 9장, 10장부터 12장, 그리고 그는 여기 7장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섹션에만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아,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는 세 가지 환상을 보았지만 총 네 가지 환상을 가졌습니다. 비록 7장은 본질적으로 훨씬 더 우주적이지만, 모두 그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바빌론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에서 다니엘의 범위는 실제로 점진적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 조금 들었고, 그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모양에 의해 억압이 있었습니다.

8장, 9장, 10장부터 12장까지는 동일한 주제로 돌아가지만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비전이 실제로 성전, 복원, 재헌납 또는 복원된 성전, 즉 두 번째 성전이 될 이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거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티오코스 4세(Antiochus IV)가 잠시 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인데, 그가 성전을 모독한 시기, 즉 이 황폐의 가증한 것을 불렀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비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가장 가까운 역사적 지시 대상이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면에서 그들이 훨씬 더 멀리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것에 대한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지시는 기원전 2세기 안티오키아의 성전 박해와 모독이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개요입니다. 이 비전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비전이 예상하고 있는 기간과 그것이 설정된 맥락에 대해 빠르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럼 간단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드 반대편에 있는 제네시스부터 시작했습니다. 922년에 왕국이 분열되고, 722년에 북왕국이 앗시리아에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587년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배 기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습니다. 539년에 페르시아인 키루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포로 종족 그룹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배 장소를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일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기원전 515년에 헌납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건설되고 봉헌되는 두 번째 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2성전 시대는 제2성전이 서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는 서기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기간은 두 번째 성전 기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기간에 진행되는 다른 일들과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작게 나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입니다.

말라기서에 대한 나의 추정치는 420입니다. 데이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동네는 420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약 정경의 마지막 또는 끝입니다. 그것이 회상하는 기간의 끝. 말라기 420.

신약성경의 사건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글썄요, 예수의 탄생과 함께 복음서는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끝부터 새로운 중간기의 시작까지의 중간기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 안에는 세계 제국들의 행진이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앗수르가 있었느니라. 페르시아 세계 제국은 539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시대로 더 잘 알려진 그리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정상에 오른 기원전 6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가 있는데, 이는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세계 제국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은 정상에 오른 직후 사망합니다. 그는 죽었고 유력한 상속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거대한 제국은 적어도 네 명의 장군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유일한 두 사람은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셀레우코스는 시리아를 장악했습니다.

오 당신이 내 지도를 좋아한다는 걸 나도 알아요. 지중해와 나일강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과장된 땅.

시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셀레우코스이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332년부터 140년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국들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의 팔레스타인 통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시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라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입니다. 내 생각에 그는 170년대에 권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원전 167년에 그의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파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건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것은 167년입니다. 3년 후, 우리는 한 가족과 그 추종자들인 마카베오 반란과 하스모니안 가문에 의해 성공적인 봉기를 겪었습니다.

164년에 그들은 성전을 되찾고 재헌납하여 현재 하누카 축제를 축하하거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우리는 실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하스몬 왕조 아래 이스라엘에 다시 독립 국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독립 국가입니다.

63화는 이걸로 끝입니다. 로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폭넓은 견해입니다.

나는 이것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도록 이것을 보드에 남겨두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전을 7장의 비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주석가나 학자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정리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파생된 조직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 비전과 비전 블록으로 그룹화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핵심 언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세 가지 비전 블록을 봅니다. 이것이 주요 그룹입니다.

이러한 주요 그룹 내에는 다수의 사소한 또는 개별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입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전을 진행하면서 살펴보게 될 세 가지 비전 블록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비전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환상을 두뿔 가진 숫양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나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성채 수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환상에서 내가 올라이 운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솟양 한 마리가 운하 독에 서 있었습니다. 그 뿔은 두 개인데 그 두 뿔 모두 높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것이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솟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설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권세에서 능히 구원할 자가 없도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위대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블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여기서 본 네 가지 개인적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처음 두 개는 우리가 비전의 시공간 지시대상이라고 부르는 시기와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전의 일부는 아니지만 비전의 맥락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시공간 지시대상은 수사에서 자신을 볼 것이고, 올라이를 따라 자신을 볼 것입니다. 운하를 따라.

세 번째로 그가 보고하는 것은 두 뿔 가진 솟양의 출현이다. 그리고 그가 보고한 다음 것은 그 솟양의 활동입니다. 이게 3절이고 이게 4절이에요.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좋아요, 이 환상에 대한 시공간 지시대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벨사살 제3년에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원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비전을 연속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더 큰 혼란스러운 연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인 여호야김 삼년부터 고레스 원년까지의 연대기 이야기 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사살 왕 제1년과 제3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벨사살 제3년에 대한 언급이고 그가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의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원전 550년이 될 것입니다. 메디아-페르시아, 메디아로부터 독립한 후 메디아-페르시아 연합 제국. 여기에는 시간 문제와 단순함을 위해 생략할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바벨론의 종말로 이어졌고, 이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7장에서 말했듯이, 벨사살 통치에 대한 이 날짜 공식, 이 설정의 효과 중 하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오만하고 반항했던 그 왕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 기간을 설정했고 벨사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길하고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벨사살은 반항적으로 주먹을 들어올릴 이 신성 모독적이고 오만한 왕의 원형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그 중 첫 번째였으며 이제 우리는 더 나쁜 왕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첫 번째 진술에는 내가 처음 본 환상 이후이거나 내가 이미 본 환상 이후라는 흥미로운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전을 7장에 있는 비전과 연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한다는 힌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엘람 지방에 있는 성채, 즉 요새인 수산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운하 옆에 있다고 말하고 이 숫양을 보고 이 비디오 카메라가 일종의 패닝 수사, 엘람이라는 생각을 거의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강둑에 있습니다. 강은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좁아집니다. 당시 수산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리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7세기 중반에 아슈르바니팔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다니엘 시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설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다리우스인 다리우스 1세는 521년에 수사를 그의 요새 도시로 재건할 예정이며, 수산은 그의 행정 수도로도 기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는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사에서 숫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은 환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 숫양은 나중에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 줄 메대-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에서는 바빌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바빌론은 그것의 일부도 아닙니다. 비록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그는 바빌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벨사살의 통치 기간에 있지만, 그의 환상에는 바빌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적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때 바빌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받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상적 경험에 대해 읽을 때 항상 갖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와 선견자가 물리적으로 이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종류의 트랜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야? 다니엘은 보통 바빌론에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것 같죠?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그가 있었을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영이 에스겔에게 행한 것처럼 그의 머리털을 잡고 수사로 끌고 갔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무아지경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의식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수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환상에서 보고 있는 일을 시작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봤는데, 헤네이. 헤네이(Henei)는 옛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로, 거의 항상 보라(behold) 또는 로(lo)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훌륭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 이 비전의 대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일종의 놀라움을 표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뭐? 그게 뭐야? 비전의 후반부에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표현은, 아, 내가 볼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었어. 그렇다면 그가 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양. 성체의 수로를 따라 있는 외로운 숫양입니다.

그리고 이 숫양에는 뿔이 두 개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고 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뿔은 권력의 상징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양은 구약에서 지도자나 통치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긴 뿔이 있는 자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조금 놀란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것입니다. 숫양이 나타나자 그는 다음 개인 환상에서 이 숫양이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숫양의 돌격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달리고 있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실제로 다른 동물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가며 동쪽은 언급하지 않고 이 도전자들에게 달려가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도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짐승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비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출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동물들이 구조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았나요? 그는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에 많은 공백을 둡니다. 그는 숫양의 이 활동을 자기 뜻대로 행하여 위대해졌다고 요약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것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고 스스로를 확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언어를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워드, 계속해서 나올 문구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동물이나 짐승도 그것 앞에 설 수 없다는 진술이 반복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동안 그런 것들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비전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패턴, 권력의 패턴, 갈등의 패턴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전 블록이고 가장 짧은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 블록은 염소입니다. 이것을 염소라고 합니다. 수컷 염소라고 번역하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빌리 염소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털이 많은 염소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숫염소라고 부릅니다.

골라보세요. 재미삼아 덩수룩한 염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입니다. 비전 블록은 덩수룩한 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염소의 염소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올바른 메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그는 염소의 모습을 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염소가 날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는 거룩한 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래서 비전 블록은 5절에서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와서, 땅에 닿지도 않고 온 지면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눈에 띄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운하 독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두 뿔을 가진 숫양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분노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격노하였다. 그는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숫양은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나 그가 그를 땅에 내던져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그의 세력에서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심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해지자 그 큰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늘의 사방 바람을 향하여 눈에 띄는 네 뿔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것은 하늘의 군대까지 커졌습니다.

군대와 별 중 일부가 땅에 던져져 짓밟혔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왕자만큼 위대해졌습니다. 그에게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 사라지고, 그의 성소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범법으로 인해 한 제물이 정규 번제물과 함께 그 곳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을 땅에 던질 것이고, 행동하고 변영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상에 나타난 정기적인 번제와 멸망케 하는 죄과와 성소와 군대를 넘겨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2,300번의 저녁과 아침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그는 서쪽에서 돌진하는 외뿔 염소를 보고 놀랍게도 여기 외뿔 염소가 온다라는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을 가로질러 경주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와 같으며 아무것도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날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땅을 가로질러, 땅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눈 사이에 거대한 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뿔 달린 숫양에게로 다가와 맹렬한 힘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염소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염소는 이 숫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염소의 날뛰는 다음 개별 환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염소가 격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숫양을 쳤습니다. 숫양의 두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짓밟았다. 이것은 미친 염소입니다.

그리고 숫양이 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타깝지만 숫양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도 숫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숫양도 염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숫양에게서 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숫양을 염소에게서 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확대하고 천국의 군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염소의 뿔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뿔에서 네 뿔이 나서 사방으로 불어오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는 더 작은 뿔이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뿔 하나, 넷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야 블록의 나머지 부분인 작은 뿔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개의 큰 뿔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자라서 커지느니라. 엄청나게 자랍니다.

세 방향으로 엄청나게 자라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동시 도달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ESV는 그것이 먼저 남쪽으로 가고, 그 다음 동쪽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말한다. 아름다운 땅 또는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다른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경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지구는 실제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작은 뿔은 하늘의 군대까지 자라는데, 이는 아마도 야훼 밑에서 섬기고, 그의 보좌 앞에서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신성한 모임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열왕기상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이 작은 뿔은 몇몇 별들과 몇몇 성체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별과 호스트를 무너뜨리는 인간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1절과 12절을 네 가지 다른 번역본으로 나열해서 읽어보면 모두 조금 다르게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어 정말 어렵네요.

구문이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네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어렵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 사항을 너무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작은 뿔이 만군의 왕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는 일부 번역에서는 호스트의 사령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석이 나오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군대 사령관에게서 빼앗긴 것은 esv가 말하는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다소 어려운 단어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타미드이고 일부 직역에서는 연속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급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행해지는 제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루에 두 번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 자체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tamid는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러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사령관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빼앗고, 성소 곧 사령관의 성소가 헐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제사와 함께 주인도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범죄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범법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큰 질문입니다. 호스트의 범법입니까? 호스트가 대표하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범법인가? 결국 안티오코스의 범법인가? 작은 뿔의 범법인가? 누구의 범법입니까? 우리는 모른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자들은 양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장에는 범법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데, 누구의 범법인지 밝히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비록 이 작은 뿔이 이런 거창한 말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작은 뿔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 힘과 성공이 실제로 작은 뿔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미묘한 힌트가 있습니다. 작은 뿔은 단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라 그 작은 뿔 뒤에 있는 어떤 손이 그 작은 뿔이 세상을 이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작은 뿔의 가장 큰 업적을 설명하면서 번제물을 가져가고 그 성소를 헐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실제로 수동 동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되고 미묘합니다. 이 장은 격려하는 면에서 매우 미묘합니다.

때로 나는 그것을 인식한 위로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허용된다는 힌트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힘을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인간 왕들이 존재하는 다니엘의 신학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그는 왕이 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고 여기의 주제와 딱 들어맞습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접근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데, 이루어졌고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든 이루어졌습니다. 그 숫양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번창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뿔에 대한 설명에는 반복되지 않은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숫양에 대한 묘사, 염소에 대한 묘사,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반복된 진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 그 짐승에게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작은 뿔에 관해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숫양에 관한 것입니다. 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염소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숫양을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뿔은 더욱 크다. 물론 그 권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비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귀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침묵 속에서 논쟁을 벌일 때는 항상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은 뿔에서 배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미묘한 힌트 중 또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막았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작은 뿔에게서 구원하셨다면, 숫양과 염소에게서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뿔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미묘한 힌트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었을 수도 있다. 난 괜찮아요. 그것은 다니엘서의 신학에 맞는 미묘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비전 블록 내의 마지막 개별 비전은 거룩한 자들 사이의 대화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한 자들의 말을 듣거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존재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보고하지 않고 단지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양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사람의 모양이거나, 또는 사람의 아들과 같다고 히브리어로는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허용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언어는 우리가 시편의 애가에서 듣는 많은 내용을 반영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님? 악인이 형통하도록 언제까지 허락하시리이까? 의인이 언제까지 고통을 받겠는가? 그리고 이 애도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은 매일의 희생이 언제까지 제거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그 황폐한 범법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거룩한 곳을 넘겨주실 것입니까? 호스트는 언제까지 넘겨질 예정인가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대답은 구체적으로 2,300번의 저녁과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신성한 장소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는 ESV는 성소가 정당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전부입니다. 2,300번의 저녁과 아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숫자는 성전에서 저녁과 아침에 드리는 제사의 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2개씩 있었죠? 아침제사가 있고 저녁제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2,300을 2로 나누면 1,150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1,150일 동안 2,300명의 희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3년이 조금 넘는 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장을 읽었다면 그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한 가지 방법은 좋은 나쁜 시간은 1번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서 시간은 실제로 이중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듀얼이 없습니다. 단순한 복수형이 아닙니다.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반은 0.5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3년 반이 됩니다. 시간, 시간, 그리고 반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인 비전을 취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 시간, 반 시간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이 숫자는 저녁과 아침 2,300일에 대한 해석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3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옵션입니다. 해당 기간의 의미에 대한 두 번째 옵션은 해당 2,300개 각각이 하루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하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루를 저녁과 아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과 아침.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첫날이네요. 그러므로 2,300개의 저녁과 아침은 2,300일, 즉 6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는 7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이고, 7은 완성의 수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완료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의 완전한 시간이 될 것이며, 그것이 언제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 아이디어는 숫자가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숫자를 작동하고 적합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문학적인 텍스트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글이 아닙니다.

따라서 숫자는 상징적이며 숫자가 상징적이라면 일종의 달력 해석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달력에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무엇이든, 정확한 시간이 무엇이든, 요점은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다지 큰 격려는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알았어, 좋아.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글썄, 그것은 지속될 것이지만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 여기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전 블록의 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찾습니다. 그는 15절부터 27절까지의 세 번째 비전 블록에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 옆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알리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사람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오자 나는 겁이 나서 엎드렸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오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임을 알라. 그 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깊이 잠들었더니 그 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진노하신 끝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마지막 때를 가리킴이니라. 네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니라. 그리고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다.

그리고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뿔이 꺾이고 대신에 뿔이 넷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를 따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치세 말기, 즉 범죄자들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대담한 왕, 수수께끼를 아는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크되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방금 자리를 잃었어요. 그는 무서운 멸망을 일으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며, 용사들과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간교함으로 자기 손으로 거짓을 행하게 하며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크게 되리라. 그가 예고도 없이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심지어 일어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임이요, 그가 꺾이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한 바 저녁과 아침에 관한 환상은 참되니 그 환상을 간수하라 이 환상은 지금 후의 여러 날에 대한 일임이니라

그리고 나 다니엘은 며칠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러 갔으나 그 환상을 보고 놀라서 깨닫지 못하였노라." 좋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환상 블록의 일부인 개별 환상을 정리 하겠습니다. 3개, 실제로는 2개가 있습니다.

우선 나는 이것을 저녁과 아침의 이상에 대한 해석이라 부른다. 이제 제목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의 이상에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통역자가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숫양과 염소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숫양과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것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꽤 신뢰할 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곳의 저녁과 아침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하는 첫 번째 일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봤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 인간과 같은 것. 그런 다음 두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 그는 그 해석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놓지 않을 긴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본 환상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보고에 대한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먼저 그가 자기 앞에 보니 놀랍게도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전 블록 2에 관해 제 자신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으나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 앞에는 사람처럼 생긴 분이 서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비전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다른 존재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놀라움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보고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환상의 이 부분이 그가 듣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하 방향에서 목소리, 즉 인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단지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이 사람에게 설명해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난 인물, 즉 인간과 같은 인물이고 그가 환상을 해석하라는 음성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두 천사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한 명은 마이클이요. 가브리엘은 이 책과 나중에 누가복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의 탄생을 알리러 오는 자입니다. 미가엘은 성서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2성전에서 기록된 더 많은 문헌을 접할 때 우리는 곳곳에 천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사론은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아마도 그에 대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 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모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천둥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었다고 보고한 그 음성, 즉 인간의 음성은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해석하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일어나서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옵니다. 다니엘은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르되, 오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 곧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영어 번역으로 보면 여기 가브리엘의 말은 그가 인류 역사의 종말,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대문자 E와 T 시간이 아니라 끝 시간, 즉 무언가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끝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환상에서 내가 지운 특정 시간, 특정 시간을 언급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나중에 그가 어느 시간에 대해 말하는지 명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무아지경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신 깊은 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졌고, 가브리엘은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해석에 이렇게 긴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거의 기절할 뻔했고, 그가 깊은 잠에 빠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브리엘이 그를 만지고 일으켜 세우면서 그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환상으로 이어지는 이 긴 길은 아마도 다니엘이 보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암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기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흡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환상에는 엄청난 고통이 묘사되어 있으며 다니엘은 그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상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책의 마지막 환상에 도달할 때 여러 번 증폭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실제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는 거의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자, 실제 해석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히네, 아니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아마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일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들어라. 진노하심이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글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존재들이 누구인지 그 의미를 말해 보세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나에게 말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 방금 여기서 말한 것의 중요성이 실제로 이 비전의 주된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상 보고에서는 다니엘이 보고 있는 고난,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에는 정해진 끝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리고 14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2,300 저녁과 아침. 17절에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진노하심이 그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끝이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으로 거의 끝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의 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본문은 이 끔찍한 비전의 격려와 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해석이 이어지며, 이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특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말 놀라운 점은 해설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그 숫양이 메디아-페르시아라고 말하면 주석가들은 그 숫양이 메대-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7장과 9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천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것이 가브리엘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숫양에 관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뿔은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숫양이 무엇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숫양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염소와 그 큰 뿔 하나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염소는 그리스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또한 그 단일 뿔인 그리스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다. 따라서 첫 번째 왕은 비록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왕은 아니지만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해설자들 사이에 놀라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뿔인 염소에서 나온 네 뿔 중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글썄요, 우리가 가브리엘에게서 들은 것은 그 네 뿔이 하나의 제국에서 나온 네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 제국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4개가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장군 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4개는 이 정도의 전체 숫자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군들이 실제로 토지를 획득하고 모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뿔 중 두 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이 작은 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넷 대신에 동일한 힘을 갖지 않는 네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이 끝날 무렵, 그 네 사람, 범죄자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작은 뿔이라는 한 왕을 얻게 됩니다. 작은 뿔은 범죄자들이나 번역에 따라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도착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누구의 범죄가 극에 달하여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음,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티오코스 4세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작은 뿔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것이 두 번째 성전 시대의 배도한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범죄가 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시고 이것이 전개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양쪽에 대한 논평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장에 나오는 범법자, 범법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즉 실제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범법이 성체와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범죄는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는 완전한 범법을 보게 됩니다. 이 왕, 이 작은 뿔왕은 얼굴이 사납고 수수께끼를 아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잠언을 생각나게 하는 언어입니다. 지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잠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왕이나 지도자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나운 사람, 어려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칭찬입니다.

내 생각에 존 콜린스(John Collins)는 수수께끼를 숙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고대 근동 전역에서 군주제, 또는 적어도 왕실 선전의 전통적인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의 또 다른 점은 이 사나운 얼굴이 비록 강하고 강력한 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잠언 7장에 나오는 유혹적인 음녀에 대해 사용된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녀는 뻔뻔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사납다. 그리고 그녀가 이 순진한 바보, 이 배우지 못한 젊은이를 유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맹렬함입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데, 그곳은 무덤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올가미에 들어가는 사슴처럼 그녀를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가브리엘이 이 왕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꽤 교활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약간의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비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지혜입니다. 그의 능력은 막강할 것이나 그의 능력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작은 뿔 달린 왕이 정상에 오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또 다른 미묘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능하게 하고, 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 블록의 9~12장에 묘사된 작은 뿔의 행동은 가브리엘이 해석하거나 실제로 가브리엘이 요약한 것인데, 단지 그가 심히 또는 크게 멸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며, 크게 성공할 것이며,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도 아닌 큰 능력으로 강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성도들을 멸하리라고 ESV는 말합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활하다. 그리고 그는 거짓을 성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교활합니다. 그는 영리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끝 부분에 대해서는 환상 전체에서 말하기를, 그가 부서지되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의 멸망에 대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서진 것입니다.

그게 다이고 그는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위대한 왕은 이제 막 사라졌습니다. 그냥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브리엘은 그것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고 부르고 숫양과 염소의 환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용을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 저녁과 아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에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나요? 그는 환상의 앞부분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때 거룩하신 분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본 것, 그가 본 이 끔찍한 일들이 단지 2,300 저녁과 아침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회복되고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고 부름으로써, 나는 가브리엘이 상황이 끔찍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가득 찬 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묶어두시고, 그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목줄에 묶어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일은 끔찍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과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환상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술입니다. 비전에서.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의 좌절은 벨사살 제3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과 몇 세기 후에 역시 파괴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는 아마도 첫 번째 성전의 파괴를 여전히 극복하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전의 파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압도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적어도 7장에서보다 더 심하고, 더 강렬합니다. 7장의 환상 끝에서 그는 그의 생각이 그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그의 색깔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며칠 동안 아프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에 다니엘이 더 강렬하고 더 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큰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다니엘 7장의 환상을 통해 그것이 제시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왕국을 받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성도들은 그와 함께 통치하며 왕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끝날 때 그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위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 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위로는 아닙니다. 고통의 끝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갖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흡수하고 쉬기에는 힘든 위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서 또 다른 위안은 호스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혼자가 아닙니다. 호스트의 사령관도 손실을 입습니다. 번제물은 그에게서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성소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군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휘관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마도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성육신에 대한 신약성서의 설명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살며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부차적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해석에 따르면 8장의 주된 위로는 '그대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 때 우리는 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고 사람들이 다양한 제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1회, 다니엘 8장, 하나님의 악에 대한 속박입니다.